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며 성장한다. 이와 같이 인간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언어와 지식 등을 습득하고, 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 등을 내면화하면서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한다. 사회화는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사회화는 개인적 차원에서 언어와 지식, 기술, 행동 양식 등을 습득하고 자아 정체성과 인성을 형성하게 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 등을 학습하여 사회를 지속시키며 한 세대의 문화를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한다. (……)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누리 소통망(SNS)과 같은 뉴미디어가 개인의 사회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인간의 사회화 과정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진다. 사회 변화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규범, 가치 및 행동 양식을 학습하기도 하는데, 이를 ‘재사회화’라고 한다. (……) 사람들은 미래의 어떤 변화에 따라 새로 갖게 될 지위에 따른 역할을 미리 배우고 준비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예기 사회화’라고 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다】 기능론적 관점에서 보는 사회화는 사회 구성원이 사회화를 통해 합의한 사회적 규범과 가치, 행동 양식 등을 습득한다. 사회화의 내용과 과정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고, 사회화는 사회의 질서 유지와 기능 통합에 이바지 한다. (……) 사회화에 실패한 개인은 재사회화를 통해 다시 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갈등론적 관점에서 보는 사회화는 한 사회의 지배 집단이 그들에게 유리한 가치나 행동 양식을 사회 구성원에게 습득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은 지배 집단의 이념을 내면화하고 기존의 지배와 피지배 구조를 존속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교육된다. 즉, 사회화는 사회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지배 집단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을 양성해 가는 사회적 작용이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에서 보는 사회화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인은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접하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면서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한다.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거나, 타인의 역할을 모방하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 관념을 형성하고 그에 따른 역할과 역할 행동을 학습해 나간다. 사회화의 핵심은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 관념의 형성 과정에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라】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인기가 많다. 한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통화 용도로만 사용했지만,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워 모바일 메신저, 누리 소통망(SNS)등 각종 앱으로 가족, 이웃들과 자주 연락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하였다. -《충청투데이》, 2016.7.-

(……)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접하고 배우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명절 즈음에는 차례상 차리는 법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인터넷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을 보면서 요리법을 익히는 사람도 많다. (……)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생활에서 알아야 할 많은 것을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를 통해 배우는 추세가 더욱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문제1] 제시문 【다】에서 언급한 사회화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의 핵심적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가】와 【나】의 내용을 토대로 제시문 【라】에서 주요하게 나타난 사회화의 유형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고, 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화를 바탕으로 뉴미디어 확산에 따른 노인들의 사회화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시오.

<250~400자> [3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 ‘남자’는 밤새 내린 눈이 허리를 넘 어설 만큼 쌓여 출근할 수 없게 된다. 초조함 속에서 하루를 더 보낸 남자는 결국 눈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하지만 금세 지쳐 버린다.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던 남자는 우수 사원인 유대리 역시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리에게 전화해 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빨리 안 오고 뭐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느새 두 시였다. 남자는 삼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쳤다. (……) 남자의 삼 끝에 폐지 묶음이 걸렸다. (……) 삼으로 떠내는데 그 사이에 들어 있던 중국집 스티커가 남자의 구두 위에 툭 떨어졌다. 손바닥만 한 광고지에는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 입안에 따뜻한 침이 고였다.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만 먹고 나면 회사까지 갈 힘이 생길 것 같았다.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 남자는 홀린 듯 휴대 전화를 꺼냈다.

(……) 눈 때문에 출근도 못하는데 배달이 될까 의심했지만 안전모를 쓴 배달원은 삼으로 눈을 파내면서 남자에게 다가와 짜장면을 건넨다. 남자가 ‘대단하시네요’라고 하자 배달원은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라고 답한다. 줄줄 흐르는 콧물을 손등으로 닦으면서 짜장면을 먹고 남자는 다시 속도를 내서 삼길을 한다.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 든 따뜻한 캔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 버렸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 버렸다.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편의점 앞에는 남자의 키만 한 눈사람이 서 있었다. 동그란 눈과 웃는 입 모양을 한 눈사람이었다. 그 웃는 얼굴을 보고 남자는 잠시 멈춰 섰다. 눈이 재앙이 되고 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곳에 서 있는,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김새는 농담 같았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입 모양을 흉내 냈다. 말라붙어 있던 입술이 툭 터져서 피가 찔끔 새어 나왔다.

(……) 한참 속도를 내다가 어디선가 메아리처럼 익숙한 음악 소리가 들렸다. 결국 남자는 소리 나는 곳으로 삼을 움직였고, 손으로 눈을 쓸어내자 눈 속에 파묻힌 채 뻗뻗하게 언 양복바지 안에 있는 누군가의 휴대전화를 발견한다. 무릎을 꿇고 삼과 손으로 눈을 파내자 양복 차림의 사람이 눈의 중간에 화석처럼 묻혀 있었다.

전체적으로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반신 일부는 아직도 눈 속에 묻혀 있었다. 쌓인 눈의 두께로 봐서는 그가 쓰러진 뒤에도 눈이 계속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 눈을 쓸어 내자 어깨와 목, 안경을 쓴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혹시라도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려던 남자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 속에서 화석이 된 사람은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던 유 대리였다. 이봐 남자는 유 대리의 몸을 흔들었다. 턱에서 땀이 툭 떨어졌다. 일어나. 휴대전화에서 다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가 흘러 나왔다. “이봐!” 유 대리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 대리의 전화를 주워 귀에 댔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기, 눈 속에, 유 대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남자의 입 안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해가 기울고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 이대로 한 시간 정도만 파고 가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는 회사 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파고 온 길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다시 돌아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게다가 남자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는 유 대리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을 골랐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다. 눈 더미는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벤치 같았다.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다. -서유미, 「스노우맨」-

-『고등학교 문학』

【나】 국철을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저이들이 무엇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 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 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 보는 저이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 두고 있었다

저이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하종오, 「동승」, 『국경없는 공장』-

-『고등학교 국어』

【다】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쟁취’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노동절이 지정되었다. 총파업을 단행하게 된 배경에는 하루 평균 17시간 노동이라는 무자비한 노동량이 있었다. 노동자들의 이 같은 열망에 경찰은 물리적 폭력으로 대응했지만, 3년 뒤인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노동자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선포하게 되면서 ‘8시간 노동 쟁취’라는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다. -국민저널, 2014년 5월 1일-

-『고등학교 사회·문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면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며,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

【라】 민주 사회의 시민은 구성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소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정치 공동체의 법이나 정책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시민 불복종이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시민불복종이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하버마스는 롤스의 입장을 수용하여 시민불복종이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규범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는 전제하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시민불복종은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불복종은 개인적인 이익을 배제하고 정의의 원리를 따를 때 그 행위 목적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뒤따르는 처벌을 감수하는 책임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 불복종은 구성원과의 소통을 전제하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시민과의 유대를 해치는 행동이나 폭력을 수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같이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면서, 동시에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문제2] ① 【가】의 제목 '스노우맨'과 소설에서 '눈'과 인물들의 상황이 암시하는 의미를 서술하시오.

② 【가】와 【나】의 시에 나타난 공통점을 찾아 그 공통점이 【다】의 내용과 지닌 상관성을 서술하시오.

③ 【가】, 【나】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 【라】와 같은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를 쓰시오.

<250~400>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누구나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의롭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다. (……) 폭력성과 선정성을 일으키는 웹툰을 규제하는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의 건전한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는 정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이러한 규제 정책이 자칫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정의롭지 않다고 보기도 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 늘 다니던 길, 돈을 내라고? -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읍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요즘 출근길에 나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한동안 그를 괴롭히던 다툼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A 씨의 철물점은 큰길에서 골목을 따라 들어와야 하는 안쪽 건물에 있는데, 4년 전 길가 쪽 상가 건물의 주인이 B 씨로 바뀌면서 이 골목길도 자신의 소유이니 매달 55만원의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하였다. 이 진입로는 30여 년간 누구나 오갈 수 있는 통행로였는데, B 씨는 통행을 제한하는 방벽(바리케이드)과 컨테이너, 간이 쇠말뚝을 설치하고 관리 요원까지 두고 길을 막았다. 참다 못한 A 씨 등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통행 방해 배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막는 것은 권리 행사의 남용에 해당한다”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세계일보, 2009. 10. 25.

-『고등학교 정치와 법』

【다】 자유주의에서는 구성원 각자의 자유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과정을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마다 추구하는 삶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은 각 시민의 사적인 삶과 개인선*을 보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개인선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선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주의는 개인들 상호간에 인권을 존중하고, 법을 공정하게 운용하며,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관용하는 태도를 보일 것을 강조한다. (……) 따라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개인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 개인선(個人善): 개인의 행복 추구나 자아실현 등 개인이 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고등학교 통합사회』

【라】 공동체주의(공화주의)는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존중하고, 정치를 비롯한 공적 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과 태도인 시민적 덕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은 시민적 덕성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국가는 시민 교육



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덕성을 함양하도록 도와야 한다. (……) 따라서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 공동선(共同善): 특정 개인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것, 즉 공공의 이익을 말한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고등학교 통합사회』

[문제3] 제시문 【다】와 【라】에 제시된 두 관점에서 【나】에 나타난 소유권 주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그리고 【가】의 논의를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와 【라】에 나타난 두 관점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550~700자> [40점]